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 간 일 2022년 03월 14일
감 수 고병욱 해운연구본부장

발 행 인 김종덕 원장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4	컨테이너선	15
탱커선	17	중고선	22	주요 해운지표	24

- 건화물선** 케이프선 운임 22,950달러/일 기록, 중국 탕산 소재 제철소에 철강 생산 감축 조치 완화 및 브라질 철광석 광산 운영 중단
- 컨테이너선** 지난주 '컨' 운임지수(SCFI)는 121.92 하락한 4,625.06을 기록하여 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탱커선** 지난주 유조선 운임지수(WS)는 대비 8.7p 하락한 48.4 기록,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하락세

윤재웅 해운빅데이터연구 센터장 / jwoong01@kmi.re.kr | 051-797-4633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915

최건우 부연구위원 / ak8102@kmi.re.kr | 051-797-4638
이상혁 전문연구원 / sanghyeoke@kmi.re.kr | 051-797-4625
김병주 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주간뉴스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운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 ▶ 하판로이즈 CEO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비용 상승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전쟁으로 인해 일부 화물은 기항지를 변경하지만 하판로이즈가 처리하는 화물 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비중은 2% 미만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음
 - 특히 연료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우려함. 지난해 말 500달러 대인 저유황유가는 최근 1,000달러에 육박함. 하판로이즈는 연간 450만 톤의 연료유를 사용하는데 톤당 500달러의 가격 상승은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증가로 이어짐
- ▶ 하판로이즈는 비용 상승과 수요 감소, 인플레이션 등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운임과 인수합병으로 올해 경영실적을 낙관함
 - 2021년 하판로이즈는 운송비용이 12.9% 상승했지만 평균 운임은 81.0% 상승해 순이익만 100억 달러에 달함
 - 동 기업은 올해 고운임이 지속되고 인수합병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를 실현해 순이익이 120~140억 달러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0120/Hapag-Lloyd-warns-of-rising-cost-risk>

최건우 부연구위원

051-797-4638, ak8102@kmi.re.kr

SIPG-에버그린, 공 컨테이너 조달센터 공동 구축

- ▶ 중국 상하이국제항만그룹(SIPG)과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상하이항에 공 컨테이너 조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SPIG는 양산 심해항(Yangshan Deepwater Port)에 공 컨테이너 조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대만 선사 에버그린과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함
 - SPIG는 이번 계약에 대해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했다고 밝힘
- ▶ SPIG는 스위스 선사 MSC와 공 컨테이너 배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이항 공 컨테이너 조달센터 건립을 위한 계약을 올해 1월에 체결한 바 있음
 - 중국 양산항에 건설될 공 컨테이너 조달센터의 규모는 450,000m²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0093/Evergreen-signs-deal-with-SIPG-for-empty-container-project-in-Shanghai>

김병주 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1. 주간뉴스

흑해 지역 벌크화물 감소, 벌크선 운임에 부정적

- ▶ 영국의 선박 중개 업체인 애로우쉽브로킹(Arrow Shipbroking research)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인해 무역구조가 재편되어 광물 및 곡물의 수입 대체지가 멀어짐에도, 건화물 물동량 부족으로 인해 벌크선 시장 약세가 전망함
 - 세계 곡물 비축량은 5년 연속 감소한 5억 9,600만 톤으로 잉여 수출량의 비중이 높지 않아 톤-마일 증가보다 수요 감소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 중소형 벌크선 운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밀수입을 위한 대체 국가로 호주나 아르헨티나가 있으나 항만 처리용량으로 인한 물동량 제약 및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인한 보호무역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옥수수 수입을 위해 고려되는 남미와 미국의 경우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인해 즉각적인 수출이 어려움
- ▶ 파나마맥스선, 수프라맥스선 핸디사이즈선 모두 벌크화물 부족으로 단기 운임 하락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수입 대체지 확보를 통해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이 탄소배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고품질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반면, 톤-마일이 감소함에 따라 브라질산 철광석 펠릿(pellet)이 유럽으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됨. 중소형 벌크선에 관한 역수송(backhaul) 항로에서의 수요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인도산 펠릿 역시 아시아보다 유럽에 수입될 것으로 전망됨
 - 지중해 브라질 및 미국의 경우 흑해 지역이 아닌 아시아로부터 철강을 수입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무력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수프라맥스 운임에 긍정적 효과가 전망됨

자료: <https://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0128/Lost-dry-bulk-volumes-will-outweigh-increased-distances-says-Arrow>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인도네시아산 석탄, 유럽 석탄 수입 대안으로 부상

- ▶ 유럽 수입업자는 러시아산 석탄 대체를 위해 세계 최대 발전용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접촉하였으며, 동 국가는 석탄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련 설비를 증설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는 석탄 수출량을 늘리기에 앞서 현지 석탄업체는 공급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함. 광업 협회(APBI)에 소속된 석탄업체는 국영전력회사(Perusahaan Listrik Negara)에 석탄을 안정되게 공급함으로써 국가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출 제한조치 재개를 미연에 방지하려 함
 - 인도네시아의 PM Ombilin Energy에 따르면, 많은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들은 상승하는 석탄 가격 및 수요량에 맞춰 기존의 생산 장비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2~3개월 안에 공장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 인도네시아 광업협회(APBI)의 사무총장인 헨드라 시나디아(Hendra Sinadia)에 따르면 현지 석탄업체와 유럽 기업들이 석탄 수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비록 1~2월의 석탄 수출량이 1,9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으나 향후 석탄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함. 올해 석탄생산 목표량은 6억 6,300만 톤이고 그중 수출량을 4억 9,700만 톤으로 예상됨
 - 석탄의 현물 및 선물가 모두 급등하고 있으며, 선박 연료유가 역시 급상승하여 2월 24일 기준 톤당 732 달러에서 3월 10일 톤당 967달러로 증가함

자료: <https://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0126/Indonesia-boosts-coal-exports-as-buyers-look-for-alternatives-to-Russia>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1. 주간뉴스

아시아 원유수입국, 이란산 원유의 글로벌 시장 조기 복귀 기대

- ▶ 주요 아시아 원유수입국들은 이란산 원유 공급이 최근의 유가 급등세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함
 - 현재 이란 국영석유회사 NIOC는 중국 수출 물량을 축소하고 있는데, 플랫츠(Platts)는 이 같은 움직임을 이란이 제재 해제 가능성을 두고 글로벌 원유시장 복귀에 대한 신호로 분석함
 - 아시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원유 외 기타 산유국 원유로 매수세가 편중될 경우 공급을 더욱 압박하여 유가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우려됨
- ▶ 전문가들은 대이란 제재 해제 시 수개월 내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70만 b/d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플랫츠는 이란핵합의(JCPOA) 완전 복원이 5월경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8월까지 이란산 원유 생산량이 75만 b/d, 재고를 활용한 30만 b/d의 원유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지난 3월 6일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을 제외한 협정 국가들에게 자국에 부과한 제재가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서에 확약을 요구하며 협상이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자료: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market-insights/podcasts/oil/031022-russia-ukraine-conflict-pushes-european-commodities-to-new-highs>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러시아산 화물 선적 선박, 입항 거부 등으로 인해 하역 어려움

- ▶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화물을 선적한 유조선들이 세계 주요국의 대 러시아 제재조치로 인해 입항을 거부당하는 등 하역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지난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즉각 금지했고 영국은 곧이어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 3월 1일 영국은 러시아 소유, 운영, 통제, 용선, 등록 또는 플래그가 지정된 모든 선박의 자국 입항을 금지함. 이로 인해 러시아산 LNG를 실은 유조선이 영국에서 하역을 거부당해 프랑스에서 하역한 바 있음
 - EU도 유사한 금지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EU 집행부인 유럽위원회는 추가 제재에 대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 이스라엘 해양 데이터 회사 윈드워드(Windward)는 최대 6,5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가 아직 90척의 유조선에 선적되어있는 것으로 추정함
 - 현재 EU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선적한 유조선의 입항 금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임
 - 미국 소재 로펌 리드 스미스(Reed Smith)는 "선주들은 지속되는 글로벌 제재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상 무역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 제재를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 당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주요국의 후속 제재 조치로 인해 선박들이 항로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전역의 항만 혼잡 급증이 예상됨

자료: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all-at-sea-russian-linked-oil-tanker-seeks-a-port/>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2. 건화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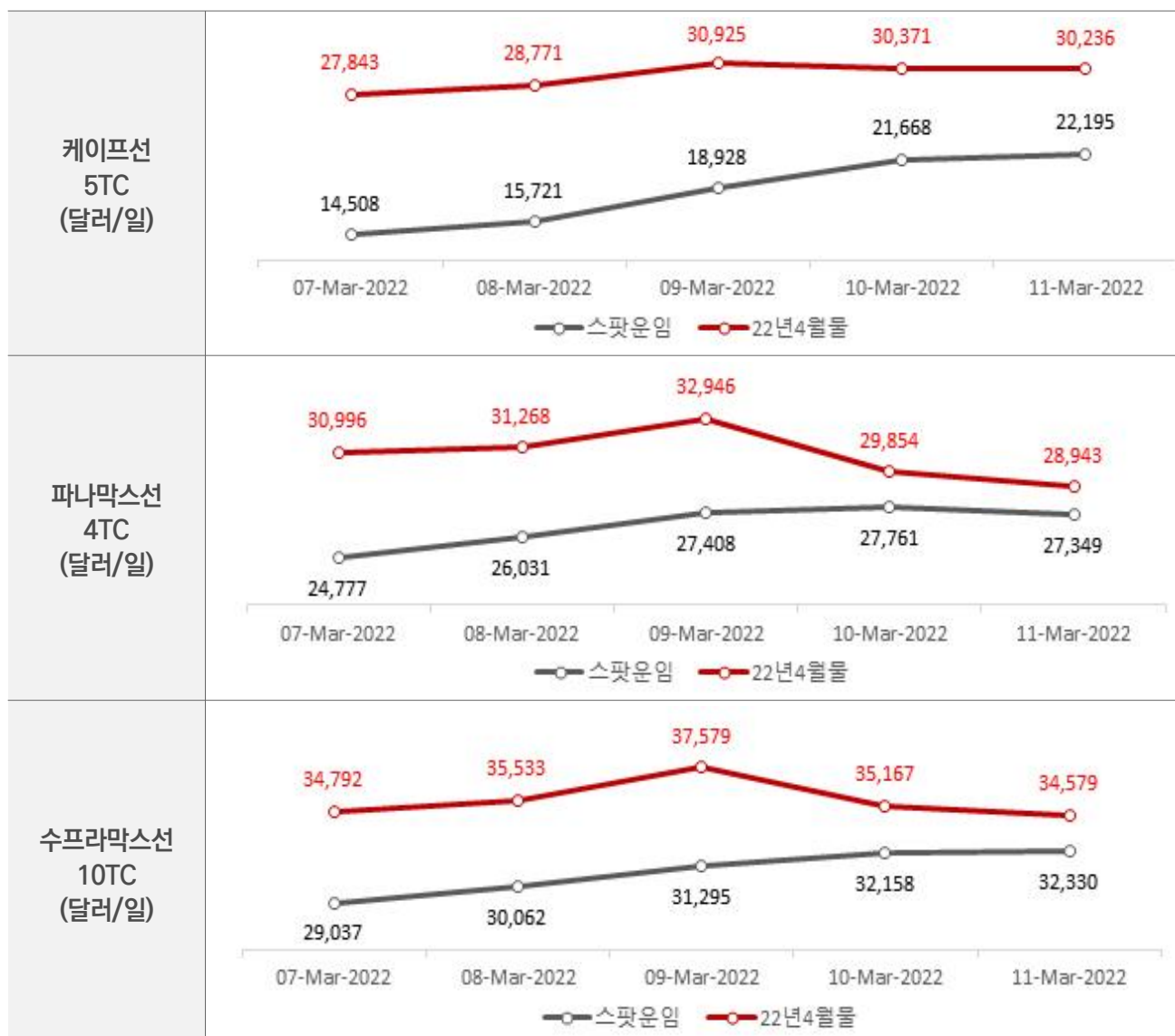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1 주간평균운임 전망

구분	3월 2주			
	주간평균운임	전주대비차이	FFA 4월물 주간평균가격	전주대비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18,604	▲ 4,635	33.2 %	▲ 4,740 19.0 %
파나마스선 4TC (달러/일)	26,665	▲ 4,030	17.8 %	▲ 3,621 13.3 %
수프라maks선 10TC (달러/일)	30,976	▲ 3,589	13.1 %	▲ 5,998 20.3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KMI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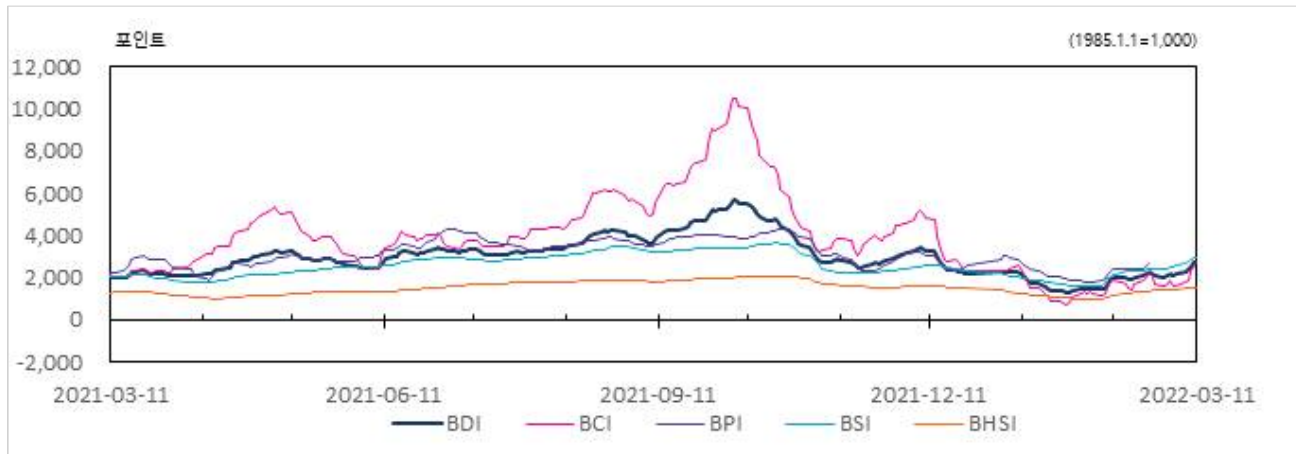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3월 2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건화물선 시장(현물) ¹⁾									
운임지수	BDI	2,513	414	1,296	2,718	1,897	1,303	5,650	2,943
선형별 운임	케이프(5TC)	18,604	4,635	5,826	22,195	13,741	10,304	86,953	33,316
	파나막스(4TC)	26,665	4,030	14,549	27,761	20,458	10,936	37,616	25,572
	수프라막스(10TC)	30,976	3,589	17,273	32,330	23,106	11,242	39,860	26,786
	핸디(6TC)	27,130	1,488	17,776	27,858	22,234	11,695	37,109	25,702
1년 용선료	케이프	31,500	2,375	15,625	19,750	17,238	10,125	23,000	16,623
	파나막스	27,575	1,825	11,250	12,750	12,018	8,425	14,750	11,191
	수프라막스	28,000	2,000	9,875	10,625	10,263	8,250	12,500	10,349
	핸디	24,750	-	8,063	8,563	8,394	7,313	9,250	8,428
건화물선 시장(FFA)									
		2022년 4월물		2022년 2분기물		2022년물		2023년물	
		3월 2주	전주대비	3월 2주	전주대비	3월 2주	전주대비	3월 2주	전주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29,629	4,740	32,163	4,901	21,714	881	19,044	380
	파나막스(4TC)	30,801	3,621	30,526	3,307	17,721	501	17,721	501
	수프라막스(10TC)	35,530	5,998	33,521	4,974	17,742	508	14,666	169
	핸디(6TC)	33,170	5,572	31,774	4,860	16,723	458	13,968	376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의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원자재 가격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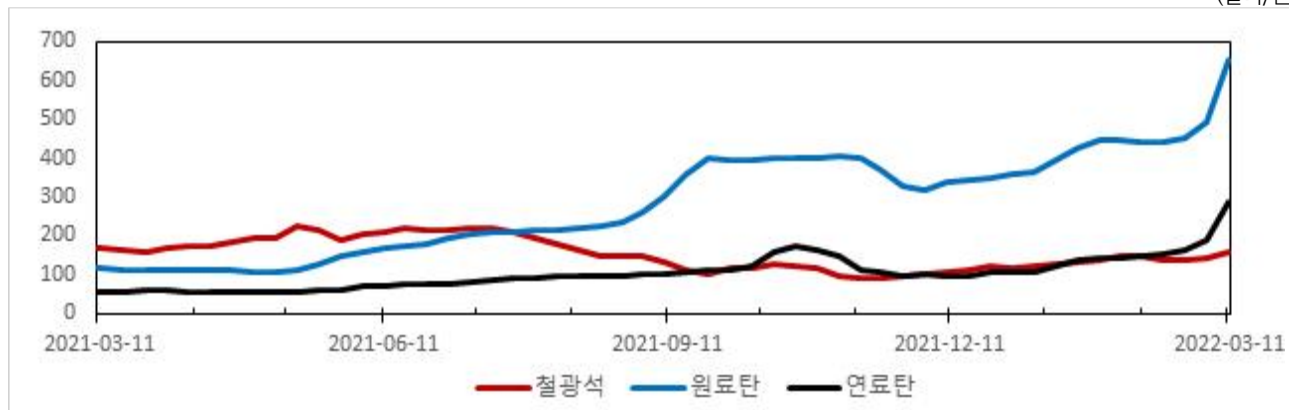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021년			
	3월 2주	3월 1주	전주대비차이				3월 2주	연평균	최저	최고
철광석	159.8	145.1	▲	14.7	10.1	%	175.7	160.3	82.4	167.3
원료탄	650.3	490.3	▲	160.0	32.6	%	124.2	223.1	97.9	163.2
연료탄	288.1	190.3	▲	97.9	51.4	%	55.5	84.8	36.1	61.2
대두	616.1	611.8	▲	4.2	0.7	%	518.2	500.6	306.5	474.4
옥수수	295.8	287.4	▲	8.4	2.9	%	212.3	224.6	122.5	185.1

자료: Clarkson,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 혼조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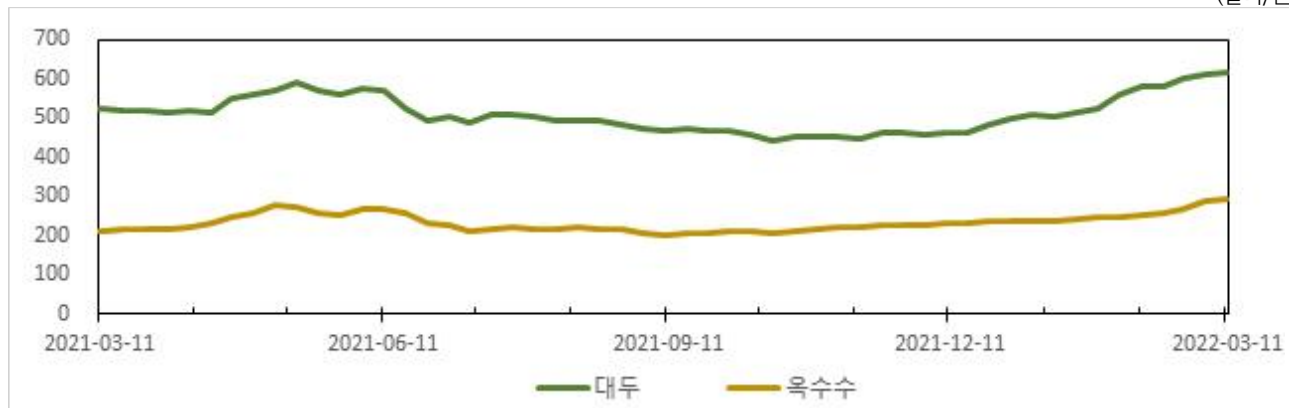
(달러/톤)



자료: Clarkson

곡물가격 추세(주간)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케이프선-동향분석

■ 케이프선 : 지난 주(3월 1주) 대비 33.2% 상승한 18,604달러/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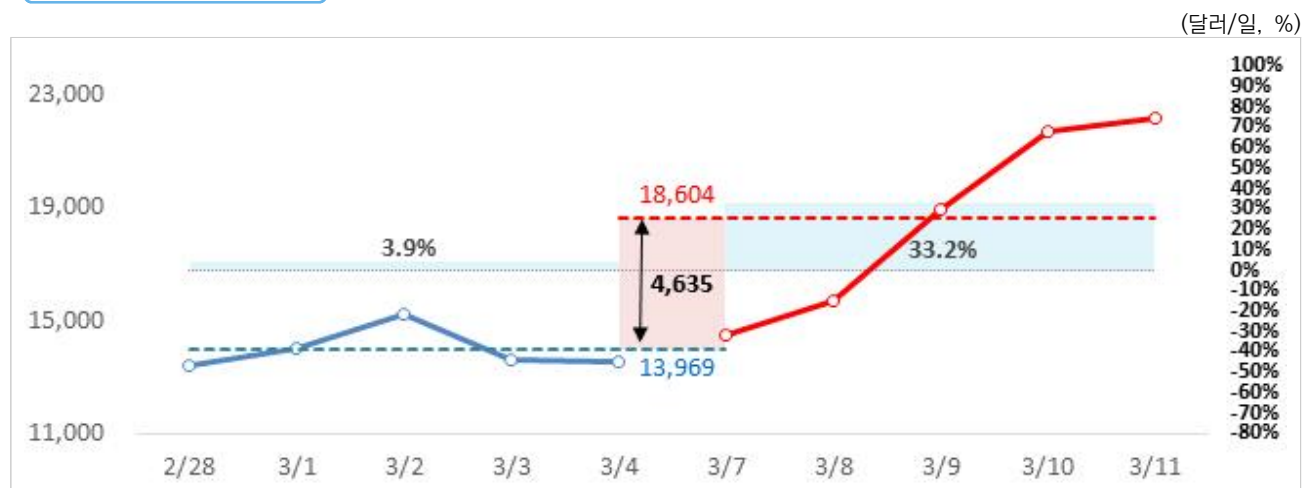
(운임) 케이프선 운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운임 상승폭 확대

- 중국의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로 인한 수요 증가와 호주에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운임이 상승함

(동향) 운임상승하락 요인 혼재, 중국 경기부양책 본격화 전망, 호주 동부에 내린 폭우로 석탄 시장에 타격

- 지난 3월 11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폐막함. 이번 양회가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 및 재정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대 의지를 확인하여 철강 원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오는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며, 신규 인프라 투자 이외에도 노후 설비 교체에 대한 투자가 큰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
- 호주 동부에 내린 폭우가 석탄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음. 이번 폭우로 주요 광산업체가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호주의 주요 석탄 수출 터미널인 кем블라(Kembla)도 지난 8일 불가항력 선언과 동시에 모든 양적하 작업을 중단함. 앞서 1월과 2월에도 폭우로 인해 호주 광산 운영이 중단된 바 있음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3월 2주	3월 1주	전주대비차이	
BCI	2,243	1,684	▲ 559	33.2%
스팟운임(5TC)	18,604	13,969	▲ 4,635	33.2%
용선료	6개월	29,000	▲ 4,500	15.5%
	1년	29,125	▲ 2,375	8.2%
	5년	21,625	▼ -125	-0.6%
FFA	4월물	24,889	▲ 4,740	19.0%
	2분기	27,261	▲ 4,901	18.0%
	22년	20,832	▲ 881	4.2%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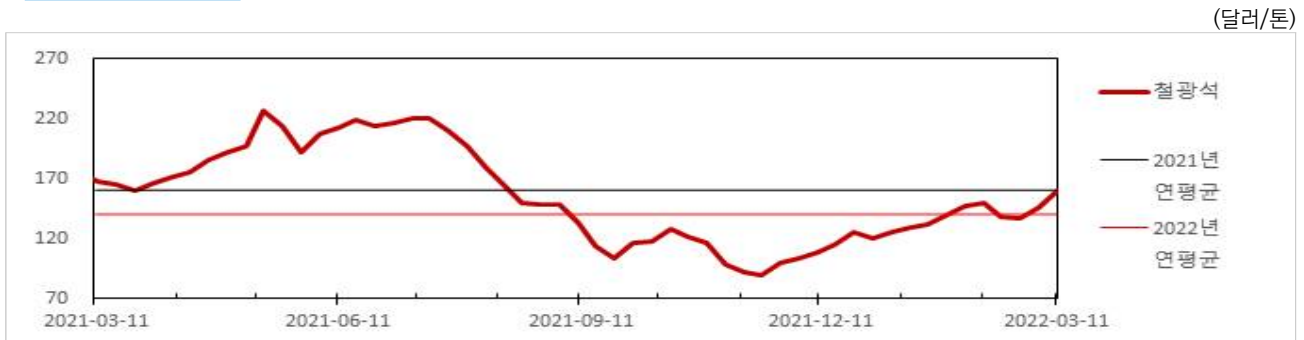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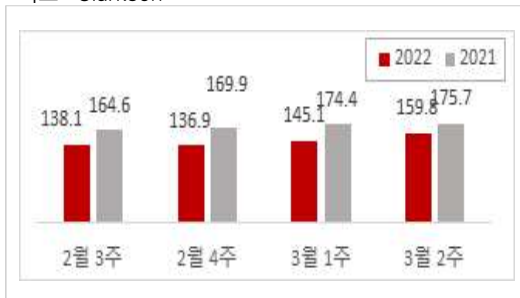
3 케이프선-동향분석

■ 철광석 가격 : 지난 주 대비 10.1% 상승한 159.8달러/톤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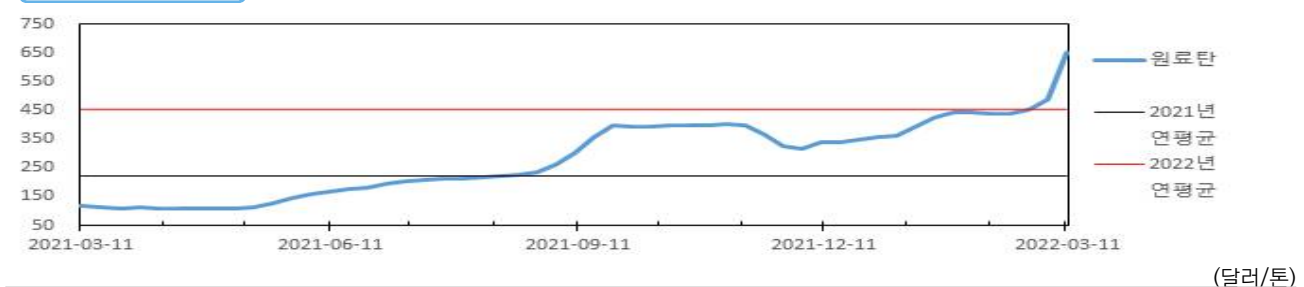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달러/톤)

구분	철광석 가격	전주대비차이		
2월 3주	138.1	▼	-11.3	-7.5 %
2월 4주	136.9	▼	-1.2	-0.8 %
3월 1주	145.1	▲	8.3	6.0 %
3월 2주	159.8	▲	14.7	10.1 %

■ 원료탄 가격 : 지난 주 대비 32.6% 상승한 650.3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자료: Clarkson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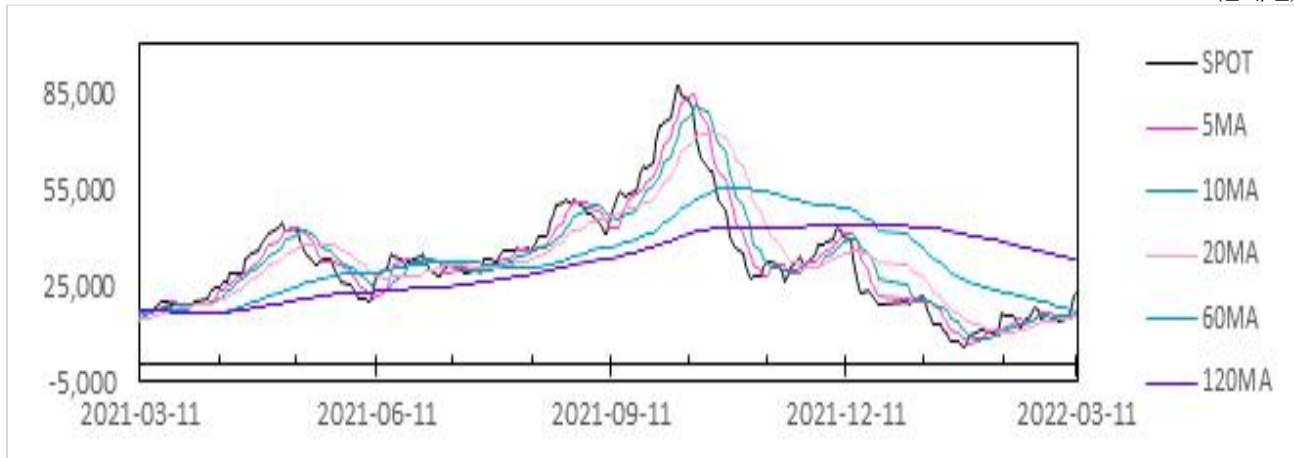
구분	원료탄 가격	전주대비차이		
2월 3주	439.9	▼	-1.0	-0.2 %
2월 4주	451.1	▲	11.2	2.5 %
3월 1주	490.3	▲	39.2	8.7 %
3월 2주	650.3	▲	160.0	32.6 %



3 케이프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 파나막스선 : 지난 주 대비 17.8% 상승한 26,665달러/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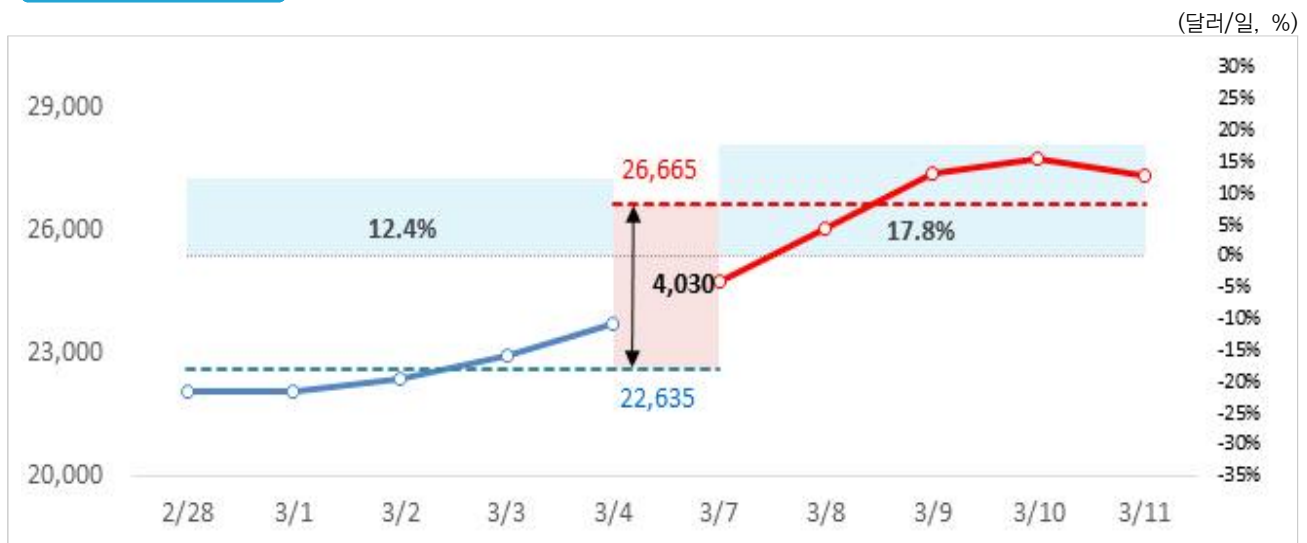
(운임) 파나막스선 운임, 5주 연속 상승세 지속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석탄과 곡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운임이 상승 흐름을 이어감

(동향) 운임상승 요인 우세, 미국산 대두, 옥수수 수요 증가, 호주산 석탄에 대한 수요 증가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으로 인해 곡물 공급망 충격 우려가 날로 커지면서 재고 비축을 위한 선구매 수요가 증가 중임. 여기에 가뭄으로 인해 브라질의 대두, 옥수수 수확량이 감소해 대체품으로 미국산 수요가 증가함
-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임. 최근 유럽의 호주산 석탄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파나막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3월 2주	3월 1주	전주대비차이		
BPI	3,111	2,664	▲	448	16.8 %
스팟운임(4TC)	26,665	22,635	▲	4,030	17.8 %
용선료	6개월	28,900	▲	1,900	7.0 %
	1년	27,575	▲	1,825	7.1 %
	5년	15,875	▲	125	0.8 %
FFA	4월물	30,801	▲	3,621	13.3 %
	2분기	30,526	▲	3,307	12.1 %
	22년	17,721	▲	501	2.9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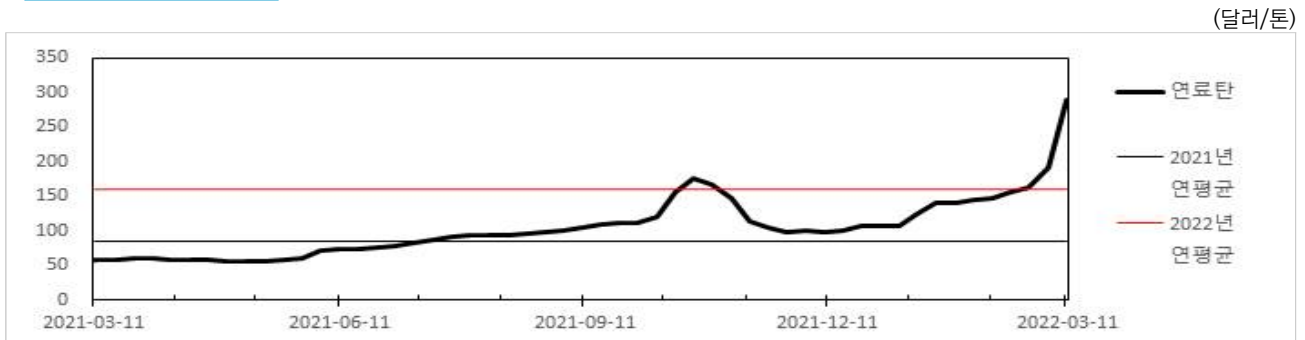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연료탄 가격 : 지난 주 대비 51.4% 상승한 288.1달러/톤 기록

연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달러/톤)

구분	연료탄가격	전주대비차이		
2월 3주	155.5	▲	7.7	5.2 %
2월 4주	162.3	▲	6.7	4.3 %
3월 1주	190.3	▲	28.0	17.3 %
3월 2주	288.1	▲	97.9	51.4 %

자료: Clarkson

대두 가격 : 지난 주 대비 0.7% 상승한 616.1달러/톤 기록

대두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달러/톤)

구분	대두 가격	전주대비차이		
2월 3주	580.7	-	-	- %
2월 4주	602.8	▲	22.0	3.8 %
3월 1주	611.8	▲	9.1	1.5 %
3월 2주	616.1	▲	4.2	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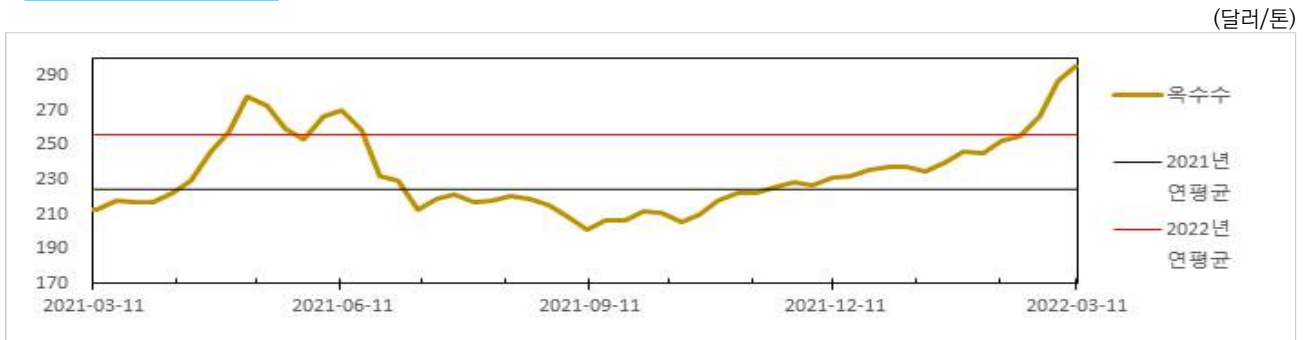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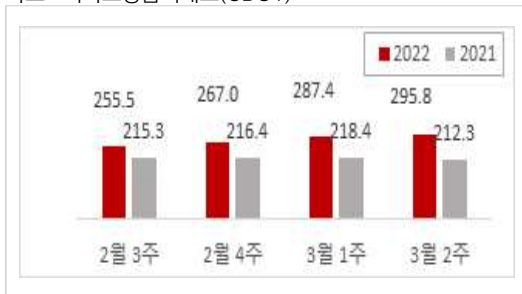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 옥수수 가격 : 지난 주 대비 2.9% 상승한 295.8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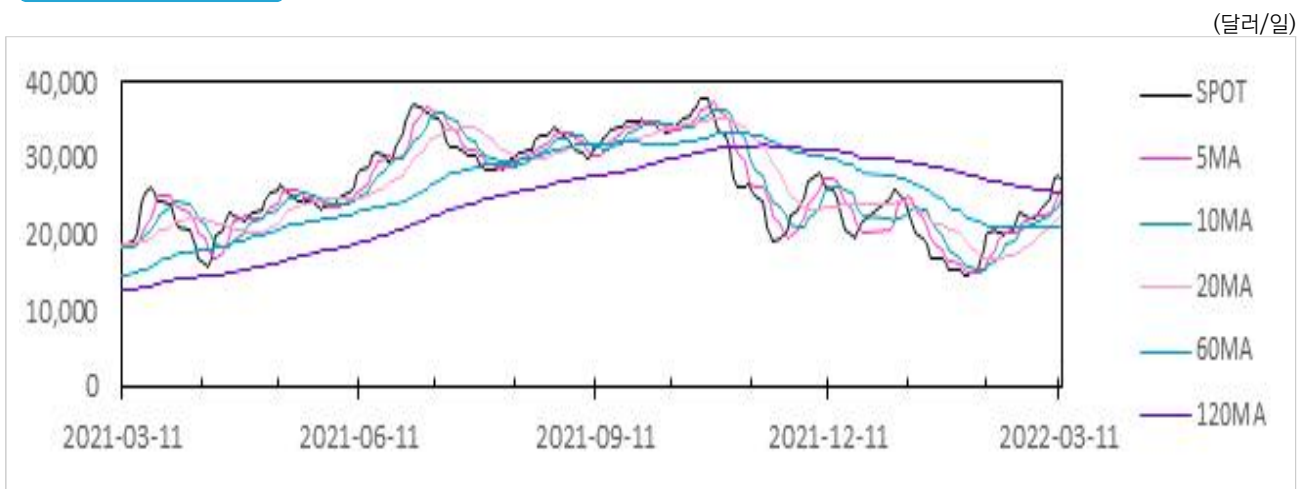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달러/톤)

구분	옥수수 가격	전주대비차이			
2월 3주	255.5	▲	3.0	1.2	%
2월 4주	267.0	▲	11.5	4.5	%
3월 1주	287.4	▲	20.4	7.6	%
3월 2주	295.8	▲	8.4	2.9	%

3 파나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 수프라막스선 : 지난 주 대비 13.1% 상승한 30,976달러/일 기록

(운임) 수프라막스선 운임, 8주 연속 중대형선보다 높은 수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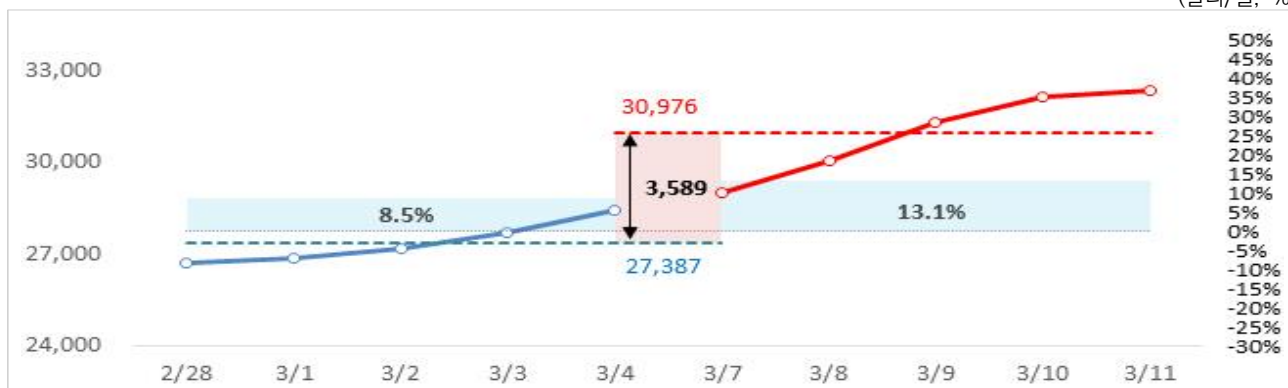
-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 간 교전이 석탄, 곡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운임이 상승함

(동향) 운임상승하락 요인 혼재,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요 증가, 주요 밀 수출국으로 부상한 인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요 철광석, 석탄을 비롯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재고 비축을 위한 수송수요가 증가함. 러시아를 스위프트(SWIFT)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가 본격화되자 호주산 철광석과 석탄,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을 검토하는 국가가 증가함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수입업자 수요 증가로 인해 인도가 주요 밀 수출국으로 부상함. 인도산 밀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해 다른 밀 수출국과 비교해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졌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곡물 가격 급등과 루피화 약세가 맞물렸기 때문임
- 또한 인도의 밀 재고량은 2,827만 톤으로 정부 목표치(1,380만 톤)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4월 수확 시즌이 시작되면 재고량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인도가 새로운 밀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의견임. 다만 인도의 부족한 인프라가 수출 및 수입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3월 2주	3월 1주	전주대비차이		
BSI	2,816	2,490	▲ 326	13.1	%
스팟운임(10TC)	30,976	27,387	▲ 3,589	13.1	%
용선료	6개월	31,000	▲ 1,000	3.3	%
	1년	28,000	▲ 2,000	7.7	%
	5년	11,000	- 0	0.0	%
	22년	11,000	- 0	0.0	%
FFA	4월물	29,532	▲ 5,998	20.3	%
	2분기	28,547	▲ 4,974	17.4	%
	22년	17,233	▲ 508	3.0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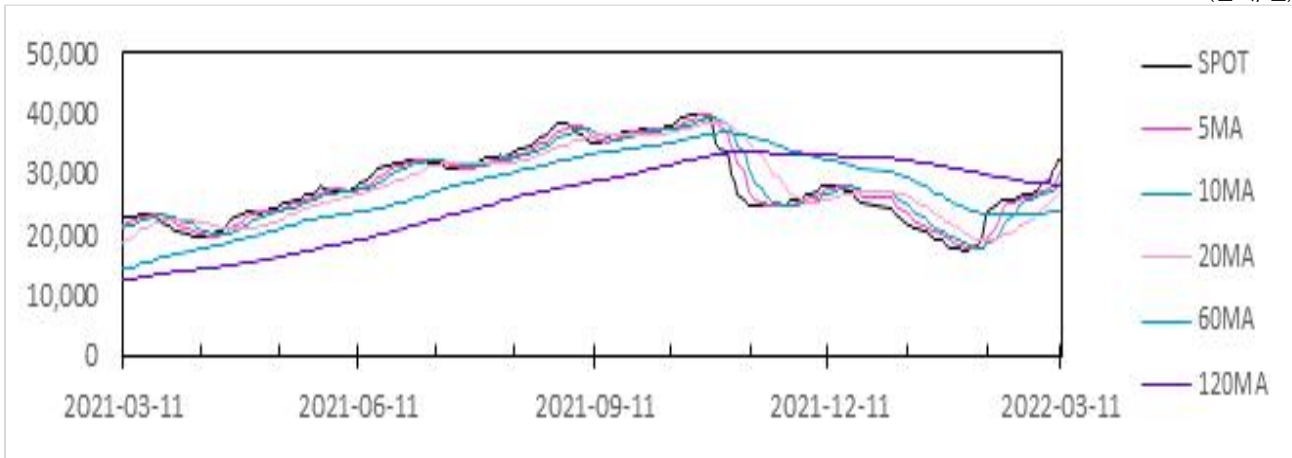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수프라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3. 컨테이너선

최건우 부연구위원 | ak8102@kmi.re.kr | 051-797-4638

1 동향분석

I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지난주 대비 121.92 하락한 4,625.06을 기록

(운임) 컨테이너 운임 8주 연속 하락

- 일본 항로를 제외함 모든 항로 운임이 하락함. 유럽 및 남미 운임 하락폭은 전주대비 커졌으나 북미운임은 항만정체의 영향으로 급락보다는 소폭 조정에 그침

(현황)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선박 기항수 급감

- 데이터 분석기관인 Windward는 과거 러시아에 일일 평균 120척이 기항했으나 3월 첫째주 기준 과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은 주당 평균 32척의 컨테이너선이 입항했으나 최근 14척으로 감소함
- ZIM의 CEO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항만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함. 컨테이너 선사들의 러시아 서비스 중단으로 키프로스, 불가리아, 핀란드 등 인근 국가로 선박 및 화물이 이동함에 따라 항만 혼잡도가 상승함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3월 2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컨테이너선 시장										
운임	종합운임지수	SCFI	4,625	-121	4,625	5,109	4,931	2,570	4,956	3,769
		유럽항로	7,019	-368	7,019	7,797	7,599	3,651	7,714	6,078
		미서안항로	8,105	-5	7,957	8,117	8,041	3,931	7,444	5,317
		미동안항로	10,634	-44	10,634	11,833	11,105	4,679	11,976	8,353
		한국항로	358	-11	358	456	410	184	386	286
		일본항로	307	17	276	307	290	251	340	285
		동남아항로	1,153	-42	1,153	1,537	1,389	840	1,494	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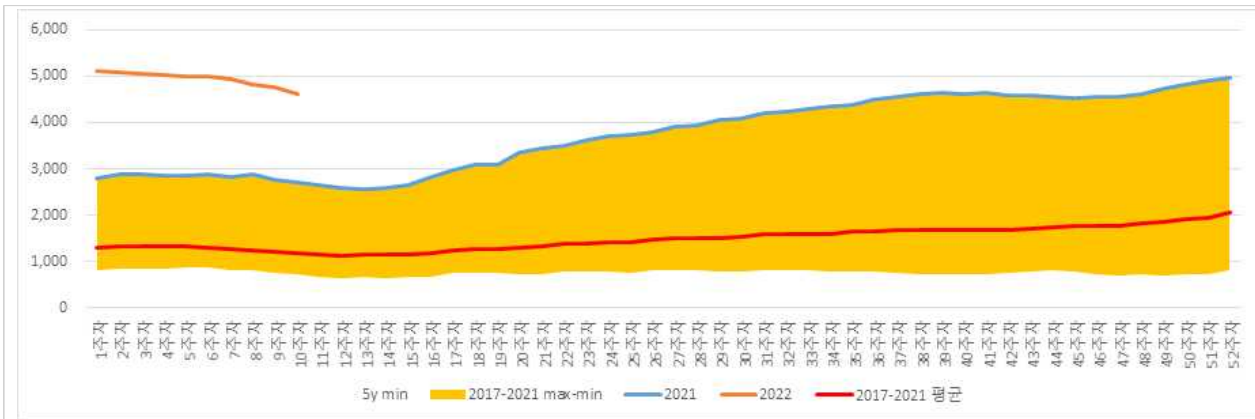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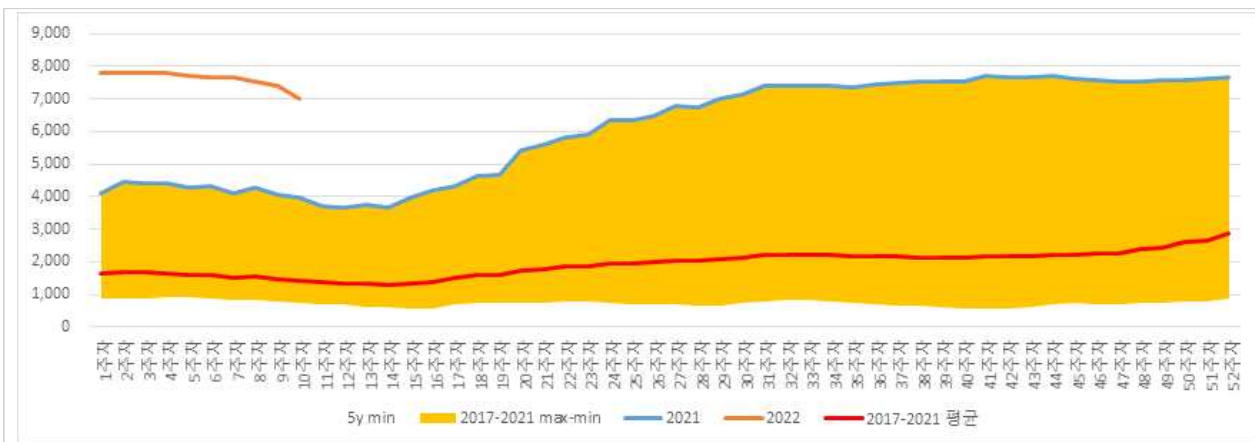
2 운임전망

| 3월 3주('22.3.14~'22.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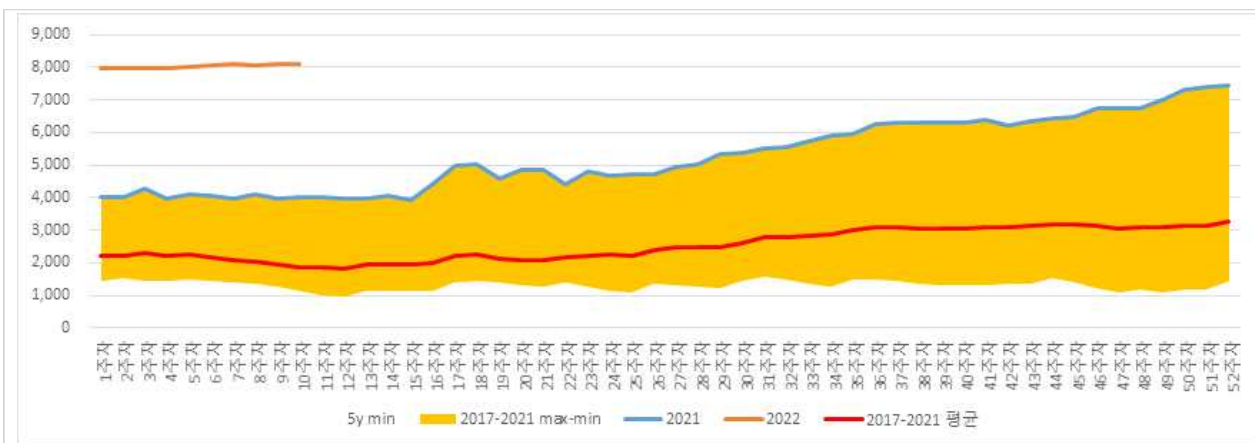
SCFI 지수는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미 서부)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급락보다는 약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4. 탱커선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1 유조선-동향분석

I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전주(3월 1주) 대비 8.7p 하락한 48.4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대부분 하락함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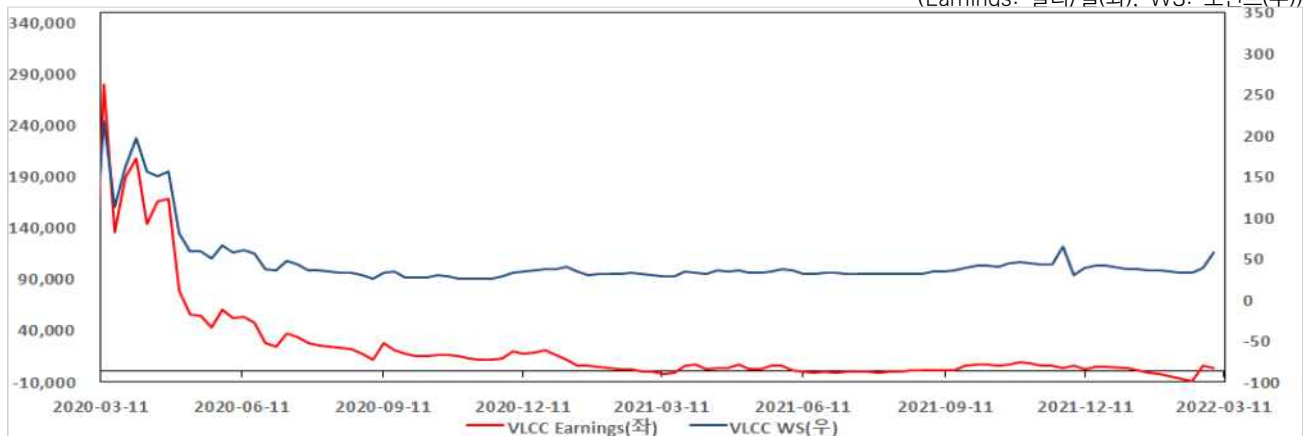
구분	3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중동-중국 항로(TD3C)	48.4	▼	8.7	15.2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21.0	▼	2.0	8.7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46.0	▼	6.5	12.4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44.0	▼	6.0	12.0 %

(동향)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로 인한 해상 물동량 감소로 대부분의 항로에서 시황 하락

-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약 70% 감소했으며, OPEC+의 기존 증산 유지 방침 고수와 주요 산유국 생산량 미달로 원유 물동량이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항로에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운임 약세를 보임
- 금융정보제공업체 리피니티브(Refinitive)의 데이터에 의하면 1주간(2월 27일~ 3월 5일) 러시아 출항 유조선의 원유 선적량은 하루 100만 배럴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 1월 300만~400만 배럴대에 비해 급감한 수치로 분석되며 시황 악화를 유도함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3월 2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유조선 시장(현물)									
중동-중국	운임지수	48.4	-8.7	32.1	57.1	38.8	28.4	65.1	35.4
항로(TD3C)	평균 수익	10,956	2,275	-13,141	14,308	-3,990	-6,779	14,966	-526
VLCC	1년 용선료	19,250	-	15,000	19,250	18,100	18,500	24,125	20,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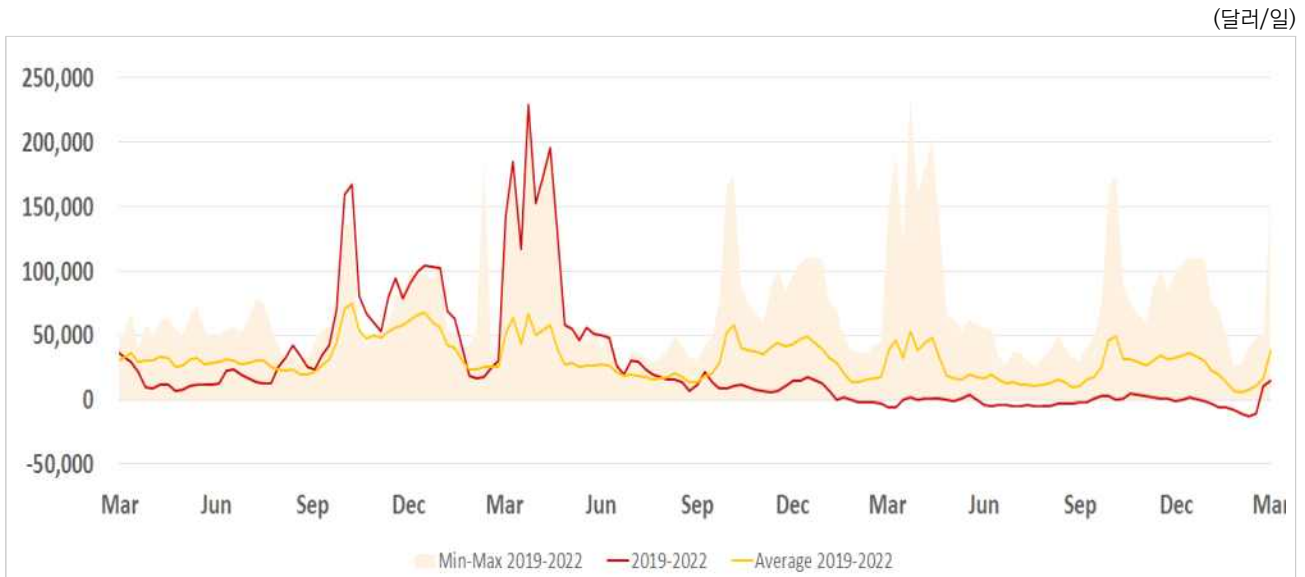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1 유조선-기술분석

■ 수익 추세선(붉은색)은 마이너스 추이를 지속해오다 전주 대비 약 32%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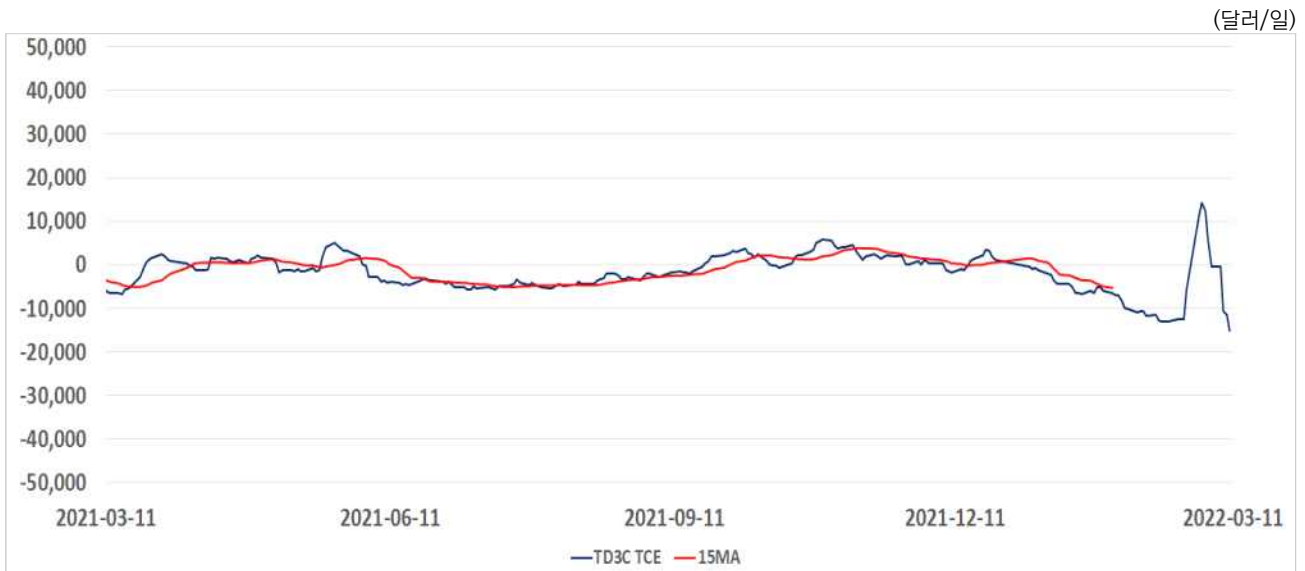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자료: Clarkson

■ 수익 추세선(파란색)은 전주 급등하였으나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며 반등에 실패함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동향분석

■ 석유제품선 WS(MR World Scale) : 전주(3월 1주) 대비 43.9p 상승한 187.7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상승함

(달러/톤)

구분	3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인도-극동 항로	187.7	▲	43.9	30.5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75K(LR2형)	190.0	▲	40.0	26.7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55K(LR1형)	210.0	▲	35.0	20.0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35K(MR1형)	225.0	▲	55.0	32.4 %

(동향) 석유제품 가격 상승과 주요국의 러시아 석유제품 공급 감소로 인한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시황 상승

-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경유, 휘발유, 항공유 등 주요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로 석유제품 수급 차질과 공급망 제약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주요 항로 시황이 상승세를 보임
- 현재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주요 유럽국은 이번 미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연료유 등을 중심으로 강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어 석유제품선 시장의 단기 호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석유제품선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석유제품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3월 2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제품선 시장(현물)									
인도-극동 항로	운임지수	187.7	43.9	119.8	187.7	136.4	80.6	160.0	120.1
	평균 수익	14,577	4,197	6,216	18,145	8,785	-96	15,345	7,642
MR	1년 용선료	14,000	1,500	12,375	14,000	12,688	11,625	13,000	12,429

주: 인도-극동(Pacific Basket) 항로는 4일 평균(월-목) 사용. 전주비도 동일기간 평균 적용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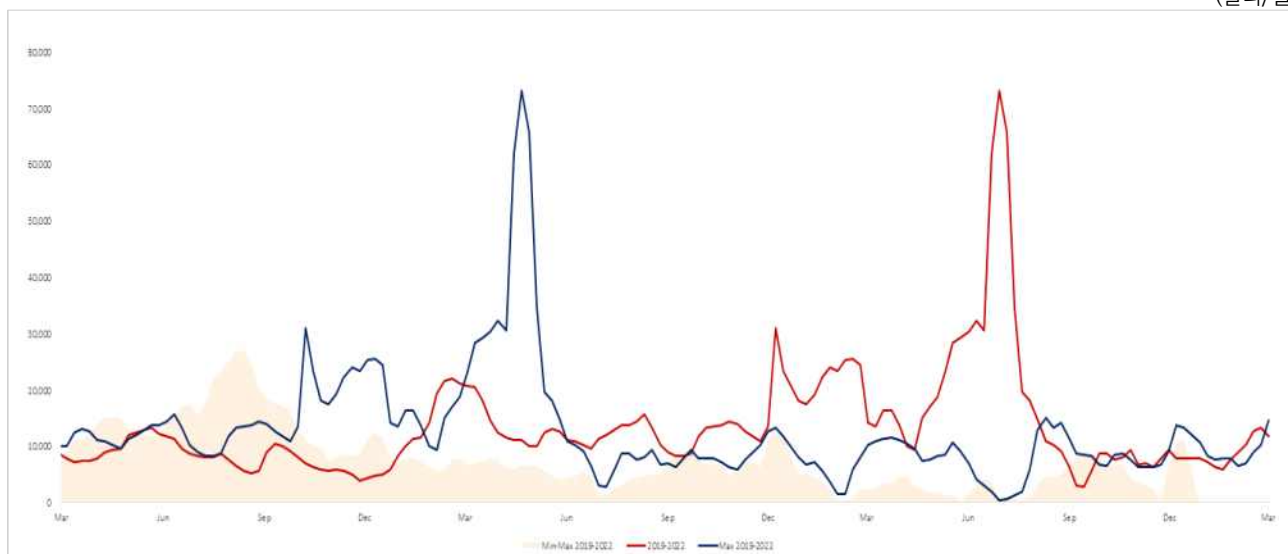


2 석유제품선-기술분석

수익 추세선은 전주 대비 42.7% 급등하며 상승세를 지속함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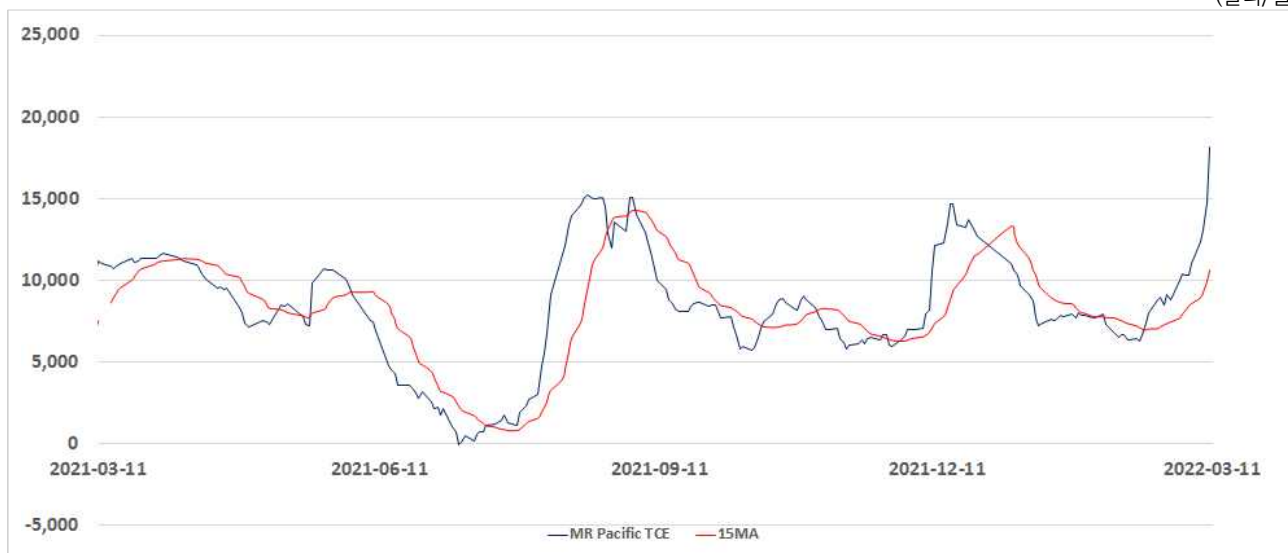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은 전주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보임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5. 중고선

1 동향분석

■ 건화물선 중고선가 지수는 26.05로 전주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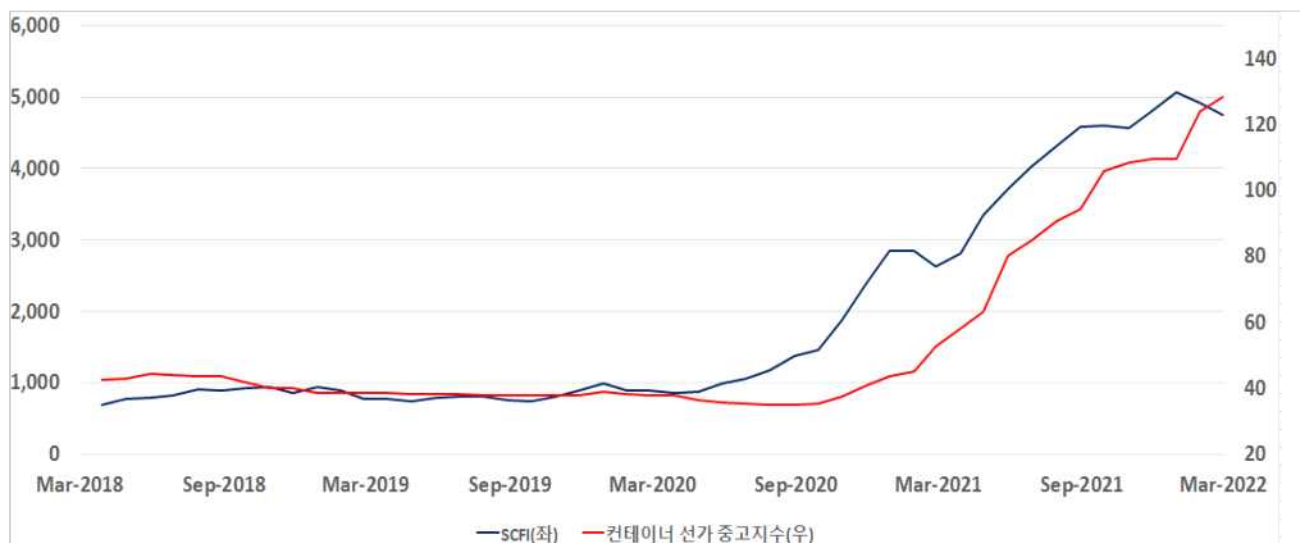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5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 컨테이너 중고선가 지수는 128.53으로 전월 대비 4.46p 상승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2 거래실적

| 3월 2주('22.3.1~'22.3.11)

I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37건의 중고선 거래 발생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Bulk	Alam Kuku	2019	82,079	DWT	2022-03-11	38.75	Pacific Carriers	Far Eastern interests
Container	Allegoria	2006	5,527	TEU	2022-03-11	109.50	Peter Dohle	Clients of Wan Hai Lines
Bulk	Friendly Seas	2008	58,779	DWT	2022-03-11	18.00	Allseas Marine	Undisclosed interests
Bulk	Happy Hiro	2006	32,610	DWT	2022-03-11	13.00	Taylor Maritime Inv	Undisclosed interests
TankChem	Paragon 11	2007	40,208	DWT	2022-03-11	9.00	Tan Nhat Minh Pet.	Undisclosed interests
Bulk	Prabhu Gopal	2003	56,025	DWT	2022-03-11	14.00	Tolani Group	Undisclosed interests
Tanker	Sandra*	2011	323,527	DWT	2022-03-11		Euronav NV	Clients of Sinokor Merchant
Tanker	Sara*	2011	323,182	DWT	2022-03-11		Euronav NV	Clients of Sinokor Merchant
Tanker	Simone*	2012	323,182	DWT	2022-03-11		Euronav NV	Clients of Sinokor Merchant
Tanker	Sonia*	2012	314,000	DWT	2022-03-11		Euronav NV	Clients of Sinokor Merchant
Container	Dongjin Aube	2005	1,050	TEU	2022-03-09		Dong Jin Shipping	Clients of MSC
Bulk	Goya	2008	75,750	DWT	2022-03-09	15.00	Mowinckels Rederi	Chinese interests
Bulk	Hai Long	2007	56,083	DWT	2022-03-09	16.00	Yuzhishun Shipping	Chinese interests
Bulk	Hanton Trader II	2014	63,486	DWT	2022-03-09	25.75	Nisshin Shipping	Chinese interests
Bulk	Nathan Brandon	2013	56,489	DWT	2022-03-09	19.00	Independent Marine	Undisclosed interests
Container	Providence	1998	653	TEU	2022-03-09	6.50	Kotoku Kaiun KK	Undisclosed interests
Bulk	Sea Melody I	2002	75,957	DWT	2022-03-09	13.40	Hellenic Star Shpg	Far Eastern interests
Pass./Car	Epsilon	2011	800	Passenger	2022-03-08		Irish Ferries	Clients of Euroafrica Shpg
Car C'rier	Hoegh Maputo	2011	4,902	Cars	2022-03-08		Pioneer Leasing	Undisclosed interests
Car C'rier	Hoegh Singapore	2011	4,902	Cars	2022-03-08		Pioneer Leasing	Undisclosed interests
Bulk	Jin Cheng	2004	53,806	DWT	2022-03-08	13.90	Jinhui Shpg & Trans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Bourbon Gulf Star	2010	2,889	DWT	2022-03-04		Bourbon Offshore	Clients of Braveheart Marine



중고선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Bulk	Coral Ruby	2008	76,596	DWT	2022-03-04	18.00	Mizuho Sangyo	Undisclosed interests
Bulk	Darya Kirthi	2012	80,505	DWT	2022-03-04	25.00	Chellaram Shpg.	Greek interests
Bulk	ES Mercury	2008	32,248	DWT	2022-03-04	15.50	Glory Ships	Undisclosed interests
Bulk	Galaxy	2012	81,666	DWT	2022-03-04	19.50	Standard Chartered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Caballo Marango	2011	142	LOA	2022-03-03		Coastline Maritime	Clients of MARS Inc
Offshore	Norshore Atlantic	2014	9,843	Water Depth	2022-03-03		NSA Bondco Ltd	European interests
Tanker	Axel Spirit	2004	115,390	DWT	2022-03-02	13.20	Teekay Tankers	Chinese interests
Bulk	BW Rye	2019	81,783	DWT	2022-03-02	37.50	BW Dry Cargo	Clients of Primerose Shipping
Bulk	Coral Opal	2012	78,090	DWT	2022-03-02		Nippon Yusen Kaisha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Steady Kestrel	2016	6,600	HP	2022-03-02		Steady Offshore	Undisclosed interests
Tug	UV Alatna	2021	2,276	HP	2022-03-02		Poet SB & Eng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Fairplay 33	2011	8,160	HP	2022-03-01		Fairplay Towage	Clients of EDT Offshore
Bulk	Orchid	2012	55,598	DWT	2022-03-01	22.60	Drylog Bulkcarriers	Greek interests
Tanker	Nautilus*	2006	307,284	DWT	2022-03-01	63.50	Ridgebury Tankers	Clients of Sinokor Merchant
Tanker	Navarin*	2007	307,284	DWT	2022-03-01		Ridgebury Tankers	Clients of Sinokor Merchant



6. 주요 해운지표

(2022.03.04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3월 평균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고선가 (\$ Million)										
건화물선(5년)	Panamax	18.0	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유조선(5년)	VLCC	72.0	1	71.5	70.0	73.0	71.3	63.0	72.0	69.1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56.0	12	56.0	44.0	56.0	50.0	14.0	44.0	32.5

자료: Clarkson

신조선가 (\$ Million)										
건화물선	Panamax	34.5	0	34.4	34.3	34.5	34.3	25.5	34.3	30.9
유조선	VLCC	115.0	0	115.0	113.0	115.0	114.3	85.0	112.0	98.7
컨테이너선	Sub-Panamax	42.0	0.5	41.75	40.0	42	40.8	30.0	40.0	35.8

자료: Clarkson

연료유 (\$/Tonne)										
380 CST	Rotterdam	663.8	53.3	637.1	445.5	663.8	527.4	311.3	488.0	396.2
	Singapore	667.8	60.0	637.8	456.8	667.8	536.6	324.8	523.5	416.5
	Korea	733.0	95.0	685.5	515.5	733.0	585.4	361.8	574.5	445.9
	Hong Kong	692.0	72.0	656.0	458.8	692.0	547.4	325.8	529.0	426.8
VLSFO	Rotterdam	923.3	108.8	869.9	567.0	924.3	696.7	387.8	605.8	505.6
	Singapore	953.8	66.3	920.6	639.5	953.8	747.6	413.0	642.5	535.1
	Hong kong	961.0	100.8	910.6	629.0	961.0	745.8	404.5	627.3	533.2

자료: Clarkson

주요 원자재가 (\$)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105.4	233.7	180.6
	중국産	182.0	9.0	178.2	-	186.6	151.0	-	264.6	193.0
연료탄 (\$/Tonne)	국제價	140.7	-0.4	141.1	-	141.3	120.2	-	244.3	127.7
	중국産	158.1	-0.5	158.5	-	192.9	155.4	-	420.7	182.4
원료탄 (\$/Tonne)	호주산	743.6	192.6	617.4	-	749.4	461.3	-	501.1	272.0
	내륙(몽골)	-	-	-				-	-	-
	중국産	470.3	14.4	452.2	-	470.3	373.9	-	577.7	337.4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1,676	-0.25	1,681	1,344	1,705	1,528	1,188.5	1,642.5	1,372.4
	밀(국제)	1,106	-241	1,200	741.5	1,425	866	601.8	856.0	702.5

자료: mysteel, CBOT

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										
		11월	12월	1월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2020년 합계	2019년 합계		
ASEAN	수출	10,546	11,248	10,268	10,268	108,50	89,017	95,086		
	수입	5,745	6,556	7,180	7,180	67,703	54,830	56,186		
NAFTA	수출	9,673	10,385	10,426	10,426	11,914	87,821	89,839		
	수입	7,954	6,969	8,319	8,319	87,464	68,263	73,797		
EU	수출	5,299	5,968	5,414	5,414	63,606	47,870	52,758		
	수입	5,059	6,700	5,023	5,023	65,913	55,517	55,795		
BRICs	수출	17,988	18,160	16,049	16,049	193,174	155,346	163,882		
	수입	17,333	17,218	16,498	16,498	170,649	128,653	131,656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